

# 幽默, 小品文 그리고 語錄體 — 林語堂의 ‘一心評宇宙文章’\*

박 계 성\*\*

— <目 次 —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30년대에 있어서의 小品文체창 |
| II. 五四 시기에 있어서의 새로운 문체 모색 | IV. 文白混合文 語錄體에 대해서    |
|                           | V. 나오는 말              |

중국 근대문학사에 있어서 문체론과 관련하여 자주 周作人과 비교 언급되기도 하는 린위탕(林語堂, 1895~1976)이라고 하면, 1932년에 잡지 《論語》를 창간하여 시대의 요청과는 동떨어진 ‘閑適’을 표방한 小品文의 제창으로 ‘幽默大師’로 불려진 지식인이라는 인상이 강하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대 중국에 있어서의 사상적 아포리아라고도 해야 할 東西文化論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발언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서문화비교론을 스스로의 문학관에 입각해서 전개한 특이한 논자였다는 것은 간과되기 쉽상

\* 본고는 줄고 <林語堂의 文体論: 小品から 語錄まで(On the Lin Yu-tang's Argument on Stylistic: from Familiar essay to Analects Style), 《一橋論叢》128: 3) 2002.9.을 기본으로 작성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린위탕이 주장하는 小品文, 語錄體의 정리, 분석을 통해 중국 근대문학사에 있어서 林문체론의 의의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자 한다. 린위탕에 있어서 문체에 대한 흥미는 역시 문학혁명시기에 스스로 통감하고 있던 신문학 창출이라고 하는 과제와 관련 깊다. 胡適의 白話체창에 호응한 <論漢字索引制及西洋文學>(1918)에 이 점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立命館Asia Pacific University 겸임강사·학술박사

이다.<sup>1)</sup> 특히, 林의 문학관은 ‘文体’의 문제에 관한 언급에서 자주 보인다. 그는 신사상의 매체로서 五四이래의 유럽화한 白話文은 불충분하다는 인식에 서 이것을 대신할 새로운 문체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는데, 본고가 주로 취급하는 小品文, 語錄體가 바로 그러한 것으로서 상정된 ‘새로운 문체’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필자 나름대로 그 근원을 찾는다면 다소 공자로부터의 시사를 지적할 수 있는데, 50년대에 쓰인 이하의 문장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공자가 스스로 쓰고 교정해서 편찬한 유일한 오리지널의 노작은 《春秋》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시대의 기록이다. 실제로 이 책은 달력과 같이 본문이 없고 표제만으로 완성된 역사상의 사건의 연대기의 편찬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 책은 그의 이른바 ‘올바른 이름에 의해 사물을 부른다.’라는 이론을 철저히 관철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근래의 편집자들이 높이 평가하듯이 불필요한 것을 생략한 다음 이러한 표제 안에 중요한 언외(言外)의 의미를 포함한 정확한 말을 음미해 선택한 것이었다. 그 예를 봐도 알겠지만, 만약 공자가 현대의 기록을 쓴다고 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이 간결한 스타일로 썼을 것이다.

‘……1939년 8월 23일 -스탈린, Hitler와의 협정에 서명하다. 9월 1일 - Hitler, 폴란드를 침략.’<sup>2)</sup>

《春秋》의 스타일에 공명한 林은 언어의 혼란을 없앤다고 하는 입장에서 공자의 문체에 시사를 받고 있다. 그는 ‘만약 공자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잘못으로 이끄는 작가들을 가차 없이 마

1) 줄고 <林語堂における東西文化論形成の一側面> 《現代中國》74, (日本現代中國學會) 2000.9.

2) 佐藤亮一 역 《ソビエト人間性》(The secret name, 林語堂 東京; 創元社 昭 34.12.) 15-1쪽 참조.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외치며 “혁명은 인간성을 무시해도 좋은가, 권력자는 정치적인 적이나 노동자를 살육해도 좋은가. 이론은 이제 충분하다……혁명의 사실을 보라” 라고 소리 높여 외치며 혁명유일의 당시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인데, 흥미 깊은 곳으로 공자의 문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구 해치우고 언어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했을 것이다.’<sup>3)</sup>라고도 한다. 그럼 그가 말하는 ‘말의 본래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본고에서는 오로지 이 점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본고에서 언급하는 ‘小品文’, ‘語錄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五四시기의 문단에 있어서 ‘語錄體’는 國語研究會가 白話文의 표준으로서 참고로 한 것이다.<sup>4)</sup> 또 ‘小品文’<sup>5)</sup> 이라고 하는 말은 《晨報副刊》의 ‘浪漫談’에서 처음으로 볼 수가 있다. 그 후 문학연구회의 기관지인 《小說月報》 《文學週報》 등을 중심으로 이 스타일이 채택되지만 독립된 장르로 정착한 것은 20년대 후반이 되고 나서의 일이다. 20년대 초기에는 《文學週報》에 ‘小品’이 사용되게 되고, 25년에는 《東方雜誌》에 ‘新語林’란이 설치된다. 20년대 중반까지 ‘散文’ ‘雜文’만이 채택되었던 《小說月報》에 시, 소설과 함께 독립된 란을 가지고 등장한 것은 27년의 일이다.<sup>6)</sup>

3) 상술, 18쪽 인용.

4) 1916년 中華民國國語研究會가 북경에 성립되어 언문일치와 관계깊은 국어운동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白話文(현대중국어구어문장)의 연습을 비롯해 모델로 삼은 것이 宋/明유생의 어록이나 明/清의 白話소설, 당시의 통속 강연원고나 白話文의 알림(통지)등에서 좋은 문장을 찾아내 표준으로 삼았다. 黎錦熙 《國語運動史綱》 2:3(2), 上海書店, 國語研究會 民國叢書 제2편 52, 23쪽.

5) 중국 고대에 이미 이러한 체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小品은 수필, 잡감 등 짧은 문장의 통칭, 예컨대 <六朝小品><唐人小品><明人小品> 등. 그 명칭은 4세기 쿠마라주(鳩摩羅什)의 반야불경의 번역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쿠마라주는 비교적 자세하게 번역한 27권 본을 《小品般若》로 칭하고, 간략하게 번역한 10권 본을 《小品般若》로 칭했다. 五四時期에 풍자소품, 시사소품, 역사소품, 과학소품 등이 있었고, 20년대에는 小品文이라고 하는 용어를 Familiar essay의 번역어로 사용하게 된다. 30년대 붐을 일으킬 정도로 유행했던 이 말의 번역어의 유래에 대해서는 胡夢華 <絮語散文>(《絮語散文》《小說月》 1926)과 鍾敬文 <小品文>(《試談小品文》《文學週報》 1928)에서 볼 수 있다. 그 외, 魯迅의 Essay의 번역어로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종이에 옮긴다.(魯迅譯, 廚川白村 <出了象牙之essay> 1924~1925) 과 Prose의 郁達夫譯 <散文> Essay와 닮은 것(<中國新文學大系/散文二集 導言> 1935) 등을 들 수 있다.

6) 당시의 문단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대표적인 잡지 《晨報副刊》《小說月報》《文學週報》《東方雜誌》 등을 중심으로 목차, 내용을 필자 나름대로 조사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참고한 공구서는 주로 《中國現

王瑤가 편집한 《中國新文學史稿》<sup>7)</sup>에 의하면, 30년대에는 이미 小品文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34년을 ‘小品文年’이라고 할 정도로 붐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공헌한 중심인물이 린 위탕이다. 이러한 문단상황에 의거하여 小品文과의 관련에서 진술되어 온 종래의 린 위탕 평가를 보면 30년대의 《論語》 《人間世》의 창간, ‘幽默’의 제창만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문체론에 관해서도 周作人의 영향이 간혹 지적 될 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sup>8)</sup>

## I. 들어가는 말

만년의 린 위탕은 60년대 당시 대만의 신문기사의 서양화된 표현을 예로 지적하면서 ‘이런 종류의 《洋白話》는 허용하기 어렵다. 약소민족의 콤플렉스의 표현이다’<sup>9)</sup> 라는 고언을 하며 문장은 달의(達意)를 주된 목적

代文學期刊目彙編》(天津人民出版社, 1988.9.), 《近代期刊篇目》(上海人民出版社, 1984.3.)을 이용하였다.

- 7) 王瑤編, 《中國新文學史稿》(홍콩: 波文書局, 1972.6.) 四 散文小品 302쪽 참조.  
8) 80년대 이후 린위탕의 <문학언어>관해 언급한 대표적인 논문은 아래와 같다.  
周質平(米), <林語堂與小品文>, 《中國現代文學叢刊》1996:1  
伊藤聖子, <一九三〇年代의 小品文研究>, 《麥灯》22, 二松學舍大學中國語文研究會, 1990.4.  
西野有希子, <林語堂における 小品文>, 《お茶の水女子大學中國文學會報》11, 1992.  
王兆勝, 《林語堂的文化情懷》(博士論文,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金美廷, <周作人、林語堂의 審美觀과 1930年의 小品文運動>, 《中國文學》第24輯, 1995.  
周可, <表現主義與林語堂的 文學觀念>,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1996年 第2期, 作家出版社.  
吳禹星, <林語堂早期的 文學觀>,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1994年 第3期, 作家出版社.  
陳平原의 一連의 論文 <兩脚踏東西文化>(《讀書》1989年 第1期), <林語堂的 審美觀與東西文化>(《文芸研究》1986年 第3期), <林語堂與東西文化>(《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1985年 第3期)  
施建偉, 《林語堂研究論集》(同濟大學出版社, 1997.7.) 등.

으로 해야 마땅하고, 印歐語와 같은 어미변화를 수반하는 문법에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기서 林은 문체 즉 보다 단적으로는 白話文이 안고 있는 문제가 국민성에 기원한다고 조차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문제의식은 동서 문화의 차이나 우열, 그 표상으로서의 문학의 본연의 자세, 그것을 실는 문체의 본연의 자세를 하나의 공통된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던 20년대 이래의 제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도 좋다. 즉 문체에 대한 관심은 린 위탕의 생애에 있어서 일관된 문제의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의 주요한 관심은 林이 바람직한 서사문체로써 최종적으로 도달한 語錄體라고 하는 스타일이 그의 일관된 문체에 대한 관심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본고의 본론 부분은 크게 4절로 구성되는데, 제1절과 제2절에서는 五四시기 이래 자주 린 위탕이 표명해 온 ‘새로운 문체’에 관련된 언설을 역사적으로 정리한다. 기술은 20년대까지를 전기(제1절), 30년대 전반까지를 후기(제2절)로 나누어 서양 문체이입의 제창으로부터 동서문화를 뛰어넘는 보편성을 가진 幽默의 내용을 띤, 小品文에 의한 표현을 제창함과 동시에 실작에 의해 스스로의 주장을 실천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취급한다. 즉 語錄體제창에 이를 때까지의 전단층의 문체론의 정리가 된다. 제3절에서는 린 위탕이 30년대 당시의 白話文(新式白話, 西洋化文体)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을 구체적인 비판적 예에 비추어 그러한 불만이 ‘새로운 문체’건설의 필요성을 그에게 한층 통감시키게 한 것을 확인한다. 제4절에서는 새로운 문체의 모색을 계속해 온 林이 과도하게 서양화한 白話文의 비판으로 시작하여, 거기에 대신할 서사문체로서 상징한 語錄體가 어떠한 스타일의 것이었는지, 그의 주장을 주로 文言과 白話의 가교라고

9) 台灣의 新聞記事는 <國語文法的建設>(台灣《中央日報》副刊, 1965年11月2日), <續談國語文法的建>(同11月8日)의 二篇이다. 본문은 中田喜勝 <台灣의 新聞用語의 歐化文体について—林語堂의 發言とその 反論>(《九州中國學會報》第17卷, 1971.5.) 54-60 쪽.

하는 점에 주목하면서 정리했다.

본고에 있어서 필자가 인용한 글이 린 위탕의 문체에 관한 언설의 전체가 아닌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sup>10)</sup> 린 위탕의 문체관의 형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정리한다고 하는 취지에서는 모든 언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도한 안배, 언급이 필요하리라 여기지만 필자의 능력이나 공부부족으로 완수할 수 없었다. 정리에 있어서 중요하고 특징적인 논점의 선택에 유의했지만 또한 소루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분의 교시, 지정을 바라는 바이다.

## II.五四시기에 있어서의 새로운 문체 모색

### 1. 새로운 문체의 탐색-서양의 essay style 이입

린 위탕의 새로운 문체의 모색과정의 정리에 있어서 30년대 초두를 경

- 10) 본문에서 인용한文은 이하와 같다(言及順):  
 <論漢字索引制及西洋文學>, <新青年>4-4, (1918.4.15), <徵譯散文並提唱“幽默”>, <晨報副刊>(1924.5.23), <幽默雜話>, <晨報副刊>(1924.6.9), <批評家與少年美國·譯者贅言>(1928.4.28), <新的文評·序言>, <語絲>5:30 (1929.10.7)  
 <旧文法之推翻與新文法之建造>(1930.8.12), <我們的態度>, <論語>3 (1932.10.16), <會心的微笑>, <論語>3 (1932.12.6), <新旧文學>, <論語>7 (1932.12.16), <文章無法>, <論語>8(1933.1.1), <《笨拙》(Punch) 記者受封>, <論語>9(1933.1.6), <論文(上)>, <論語>15(1933.4.16), <編輯後記>, <論語>15(1933.4.16), <論文(下)>, <論語>28(1933.11.1), <與陶亢德書>, <論語>28(1933.11.1), <論幽默>, <論語>33(1934.1.16), <人間世發刊詞>, <人間世>1(1934.4.5), <方巾氣研究>, <申報·自由談>1934.4.28/30,5.3), <論小品文筆調>, <人間世>6 (1934.6.20), <論語錄體之用>, <論語>26(1933.10.1), <語錄體學例>, <論語>40(1934.5.1), <怎樣洗煉話入文> <人間世>13(1934.10.5), <關於《人間世》>, <人間世>14(1934.10.20), <小品文之遺緒>, <人間世>22(1935.2.20), <與徐君論白話文言書>, <論語>63(1935.4.16)  
 <吾國與吾民>(My Country and My People,1935)  
 <五·四以來的中國文學>(1961.1.16), <國語文法的建設>, 台灣<中央日報·副刊>(1965.11.2), <續談國語文法的建設>, 台灣<中央日報·副刊>(1965.11.8)

계로 전후기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전후의 단계가 탐색의 심화에 수반되는 변화나 발전과 함께 일정한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분기는 주로 정리의 편의를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

린 위탕은 1916년에 상하이의 성요한(聖約翰)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다음 해에는 북경의 淸華學校의 영어 교원으로서 교단에 선다. 蔡元培, 胡適 등五四신문화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과의 교제권내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젊고 패기 왕성한 少壯의 언어학자로서 한자의 색인화, 성어 사전 편찬, 방언 연구 등을 시작했다. 당시 발표한 연구 성과로서는 <漢字索引制說明> <分類成語辭書編纂法>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린 위탕은 이미 ‘새로운 문체’에 대한 탐색을 시작한다. 예컨대 <論漢字索引制及西洋文學>(1918)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있어야 할 문체의 모델을 서구의 문체, 특히 강의체라고 하는 스타일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유명한 학술, 설명문 예를 들면 헉스레이, 버클, 머슈·아놀드, 윌리엄·제임스 등은 언어사용이 적절하고 단락구성이 타당한데, 그러한 문장의 장점을 서양인은 신선함(Lucidity), 명쾌함(Perspicuity), 사고의 정밀(Cogency of thought), 표현의 진실과 적절(truth and appropriateness of expression)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것들과는 조금도 닮아있지 않다. 글이 유창하고 학문을 명쾌하게 해명해 주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쾌함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것들 모두는 우리 신문학에 있어서 아직도 달성되지 않은 부분이다.

더욱이 林은 문학혁명의 제창 이래, 국민은 서양문체의 장점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인이 모델을 제시하여 국민을 각성시켜야 한다. 글이란 정(情)으로부터 생겨나는 이상 필요와 감정이 결합해야만 좋은 글이 되며 문체에는 논설문 이외에 서신체, 담론체, 강의체, 과학기사체 등의 응용문도 있어 서양인은 이것을 Familiar style, conversational style, style of scientific reports, oratorical style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

들은 모두 시도해야 하며 특히 강의체의 일종인 essay style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구로부터의 문체이입을 주장하고 있다.<sup>11)</sup> 또 白話文에 대해서는 평소의 말하는 언어의 재현으로서 산만하게 쓰거나 표현에 대한 무자각을 경계해야 마땅하다고 하여 신중한 대처를 제안하고 있다.

상술의 주장중 표현과 情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문체가 실어야 할 내용까지 파고 든 해석이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대체로 문장의 스타일이 문체의 중심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입해야할 모델로서 그에게는 특히 영국류의 광의의 소위 에세이스타일이 강하게 의식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린 위탕의 문체를 둘러싼 관심의 출발점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잘 나타내는 글로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다.

五四운동 전야에 林은 도미, 하버드대학의 비교문학연구소에서 배운다. 당시의 林은 이탈리아의 미학자 베네데토·크로체(인용자주: Benedetto, Croce 1866~1952)의 미학이론에 심취하게 된다. 동서문화융합의 시점을 명확하게 내세운 후년의 <<新的文評>>序言(1929) 등은 크로체의 표현주의 미학의 영향이 크지만, 그러한 이론적 흥미는 이 시기에 싹튼 것일 것이다. 그 후 프랑스, 독일 등에서 유학하고 1923년 논문 <古代中國語音學>으로 라이프치히 대학으로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년 9월 귀국, 북경대학 영문학계 교수가 된다. 귀국 후의 林은 <讀汪榮寶歌戈魚虞模古讀考書後> <國語羅馬字拼音與科學方法> 등의 전공 분야에 관한 논고를 발표하는 한편, 24년 9월 語絲社에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문단에 관여하게 된다.

11) 林의 산문론이 周作人의 의한 영향 즉, 영국 에세이와 명말 공안/경통파의 영향이 강하다고 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지적되고 있는 데, 전반부분은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다. 상기의 인용문에서도 보이듯이 북경대학에서 언어학교수를 하며 이 글을 발표하던 당시, 즉 주작인의 일련의 주장(28년에서 30년대 초반에 걸친 美文등의 문체론)보다 10년을 앞서 서구산문의 장점을 도입하려는 주장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30년대에 들어오자 영문 소품집 2권을 직접 간행하기도 한다.

## 2. 幽默(유머)의 제창

문단에 인지되면서 린 위탕이 제일 먼저 제창한 것이 ‘幽默’(유머)이다. 문학과 인생을 보다 풍부하게 하며 더욱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幽默이라고 하는 그의 주장은 <徵譯散文並提唱幽默>(1924), <幽默雜話>(동년)에 단적으로 진술되고 있다. 전자에서는 강의, 사설이라고 하는 스타일의 문체에도 ‘완의적 이야기’(주제와 관련이 없는 해학적인 삽화등)를 사용하는 것으로 무미 건조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하고, 후자에서는 幽默란 어디까지나 작자나 작품의 스타일인 것이고 이 두 글자는 humour의 순수한 음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글들에서 林이 이미지 한 幽默란 해방된 정신의 획득과 문학의 자율성 보증이 전제로서 불가결한 것이었다. ‘幽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확실히 서구의 에세이의 스타일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라는 점에서 시사를 얻고 있지만, 林은 그것을 서구 문학에만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서구와 중국의 문학에 공통항으로 존재하는 요소로 가정하여 중국의 문학 전통으로부터 발굴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그 때, 그는 미국 유학 시대에 영향을 받은 크로체류의 표현주의 미학에 이론적인 근거를 요구하는데, 예컨대 당시의 중국 국내에 있어서의 문학 ‘비평’의 본연의 자세가 표현주의 비평에의 경사를 결정지은 이유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林은 1928년에 번역한 V.W. 브룩스 《批評家与少年美國》에 첨부한 글에서

현재 중국에서 필요한 것은 다만 해방의 문학비평이고 표현주의의 비평이고 크로체, 스펡간, 브룩스 등이 인식했던 비평의 규율을 타도하는 비평이다.

라고 하여 표현주의 비평으로의 심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브룩스는 미국의 전통문학을 철저하게 때려 부숴는데 태평양의 맞은편

에 있는 중화민족에게도 당연히 마땅히 상당한 암시를 줄 것이다. 다만 ‘文學規律’을 우러러 사모하는 몇 명의 동포를 제외해서이지만.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엿봐지듯이, 그것은 당시 같은 미국 유학의 경험을 가지면서 林이 신봉하는 크로체나 스프링간과는 대립되는 견해의 소유자인 아빙·바빗드(인용자주 : Babbitt, Irving 1865,8,2~1933) 등의 신고전주의를 생경하게 이입하려고 한 梁實秋 혹은 梅光迪등 《學衡》파로의 반발을 기세로 하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 3. 동서 문학이론의 유사성

이러한 것은 오로지 문학 비평의 본연의 자세를 둘러싼 견해의 상위된 표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는 더욱 전통문학속의 문학의 규율에 반대하는 또 다른 문학요소에 주목하게 된다. J. E. 스프링간(인용자주 : Spingarn, Joel Elias 1875~1939)의 저서 *The New Criticism* 의 번역 《新的文評》에 쓰인 서문에서, 린 위탕은 서구표현과의 문예 비평과 유사성을 갖춘 중국의 문예비평을 언급한다. 표현과는 모든 질곡을 타파하고 모든 전형 을 전복할 수가 있다, 문예 작품은 ‘個性’의 표현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표현과 혹은 광의의 낭만파에 가까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중국에도 존재한다, 레토릭은 즉 문학에 있지 않고, 수사학은 문학비평이 아니다, 규율만을 엄수했다면 《수호전》이나 《홍루몽》과 같은 개성이 넘쳐나는 인물 형상이나 구성을 갖춘 작품은 태어나지 않았다, 고 하며 본토의 문학 전통 안에 현대에 있어서도 유효한 사상자원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논점의 전개를 한꺼번에 확대한다. 이러한 그의 관심의 확대와 심화를 나타내는 예로서 1930년의 <旧文法之推翻与新文法之建造>를 들 수 있다. 여기서 林은 ‘性靈’의 해방과 새로운 문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역시 크로체가 주장한 규율에 의한 제한으로부터의 해방을 전통적인 개념인 ‘性靈’을 속박 하는 일체의 포기라고 해석한 다음, 문장의 美惡이라는 것은 개개

의 표현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낡은 문법은 체제의 문법이고 새로운 문법은 이미지의 문법이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性靈이 언급되고 있으며 林은 그것을 ‘自我’ ‘個人의 思考方式’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은 서구의 표현주의파가 주장하는 ‘個性表現’에 가까운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전개는 무엇에 의해 초래된 것일까? 린 위탕은 고전의 문학 전통 안에도 실은 ‘新古典主義’파가 만드는 規律에 속박된 古典과는 대조적인 자유롭게 ‘性靈을 해방한 또는 발휘한 表現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古典이해의 일면성을 비판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표현주의 문예이론을 현실성을 띤 실천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20년대에 있어서 이러한 표현주의 이론 새로운 문체에 대한 모색을 시작하던 초기에 제창된 서구의 에세이의 도입 그리고 ‘幽默’가 통일적으로 인식된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들이 통일되는 형태로 새로운 문체론이 보다 계통적으로 진술되게 되는 것은 30년대에 들어오고 나서의 일이다. 이 시기가 되면, 린 위탕은 이론탐구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스스로 실제의 집필활동을 병행하면서 나름대로의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게 된다. 《論語》 등 일련의 小品文잡지의 창간을 林자신의 논리에 비추어 본다면 이와 같이 맥락 지을 수 있을 것이다.

### III. 30년대에 있어서의 小品文제창

30년대가 되자 린 위탕은 주로 잡지경영에 심혈을 기울인다. 1932년 9월에 ‘幽默’ ‘小品文’스타일을 제창하는 《論語》를 상하이에서 창간, 34년에는 중국 최초의 산문소품 전문지《人間世》를, 35년에는 《宇宙風》과 영문잡지의 《天下》를 연이어 창간하고 있다. 이러한 잡지의 지면에서 린위탕은 小品文스타일 그리고 語錄體를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 동년, 그

때까지 틈틈이 발표해 온 중국문명 인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My Country and My People* (《吾國與吾民》)을 간행하는 것으로 서구사회의 동양문명의 소개자라고 하는 林 후반생의 경력의 출발점을 시작한다. 그 후, 미국을 무대로 영문에 의한 집필활동을 하며, 1976년에 홍콩에서 일생을 마칠 때까지 수많은 에세이, 소설을 세상에 쏟아낸다.<sup>12)</sup>

이 단계에서는 전단계에 있어서 아마도 린 위탕 자신에게도 명확하게 의식되고 있지 않던 ‘幽默’ ‘性靈’이라고 하는 <내용>과 ‘小品文’ ‘에세이’라고 하는 <형식>(林은 이것을 곧잘 筆調라고 부른다)의 관계성이 스스로 많은 小品文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점차 명확한 형태를 취하기 시작한

12) 30년대에 들어와 린위탕은 상하이에서 저널리스트로 활약하는 가운데 당초 *Letters of a Chinese Amazon and Wartime Essay* (《林語堂時事述譯彙刊》), 《現代新聞散文選》(*Reading in Modern Journalistic Prose*) 저술한다. 1932년말에는 中國民權保證同盟에 참가해 魯迅, 宋慶齡 등과 전국 집행위원을 하는 한편, 동년 9월에는 최초의 잡지 《論語》半月刊을 창간해 유머, 소품문을 제창하기 시작한다. 1934년에는 문언, 백화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되면서 중국 제일의 순수산문 소품의 간행물인 《人間世》를 창간한다. 이러한 잡지의 지면을 빌어 스스로 語錄, 小品文스타일을 실험하는데 <薩天師語錄> 시리즈, <上海之歌> 등이 그 예이다. 34년 이라고 하는 시대 상황속, 陳子展에 의해 ‘대중어가 제기되는 한편, 陳望道는 《太白》을 창간하여 ‘과학소품’을 제기하는 것으로 린위탕비판에 박차를 가한다. 林은 1935년에는 영문월간지 《天下》와 《宇宙風》을 차례차례로 창간하고 있으며, 또 중국 문명론의 집대성인 *My Country and My People* (《吾國與吾民》)를 출판한다. 그 외, 영문을 통한 문필활동도 정력적으로 하여 《英文小品甲集》(*The Little Critic: Essays, Satires and Sketches on China, First Series: 1930~1932*), 《英文小品乙集》(*The Little Critic: Essays, Satires and Sketches on China, Second Series: 1933~1935*) 《子見南子及英文小品文集》(*Confucius Saw Nancy and Other Translation*), 《中國新聞輿論史》(*A history of the Press and Public Opinion china*)를 저술하고, 1939에는 *Moment in peking* (《京華煙雲》38년 탈고)이 미국에서 출판된다. 1941년 이후는 뉴욕에서 오로지 작가활동에 치우치며 많은 영문 장편소설을 쓰고, 1948년에는 중문타이프라이터를 발명하고 있다. 1965년에는 《無所不談》이 대만에서 출판 되고, 70년대에는 스스로 발명한 上下形檢字法과 國語羅馬字注音符을 이용한 《林語堂當代漢英詞典》(1972)이, 또한 *Chinese-English Dictionary of Modern Usage* (《當代漢英詞典》1973), 《紅樓夢人名索引》(1976) 등을 완성한다 이상을 린의 주된 업적으로 들 수 있겠다.

다. 이하에서는 이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 1. 幽默와 性靈

20년대의 ‘幽默’제창 초기에 린 위탕은 陳獨秀 등의 문학혁명에 관한 성급함을 ‘幽默’결여의 현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我們的態度>(1932)에서 ‘유머문학은 사실주의인 것이다’고 하여 ‘幽默’를 골계, 냉소와는 다른 의미로 정의한다. 더욱이 그 해의 <會心的微笑>에서는 ‘幽默’란 회심의 미소로 또 예리, 관대, 소박, 기민이고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性靈” 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므로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며 幽默와 性靈의 관계를 명확히 하게 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제논의중에서 린 위탕은 幽默를 동서문학에 공통되는 요소로서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新舊文學>(1932)에 보인다.

이러한 사람들의 작품은 대부분이 幽默를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張謇庵, 金聖歎, 鄭板橋, 袁子才 등이 매우 뚜렷한 예이다. 영국문학에 있어서 산문의 원조인 Chaucer, 산문의 대가인 Swift, 小品文(Familiar essay)의 원조인 edison 등의 작품은 어떤 것은 소박하고, 어떤 것은 청신하며, 또 어떤 것은 날카롭지만, 이러한 것들에는 모두 幽默가 깃들어 있다

즉 ‘幽默’를 公安/竟陵派 문인과 영국의 essayist 들의 작품과의 공통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더욱이 <文章無法>(1933)에서는 ‘性靈’과 서양 표현주의 이론가와의 관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서양의 표현주의자인 크로체, 스펡간 및 중국의 낭만주의 비평가라고 할 수 있는 王充, 劉勰, 袁子才, 章學誠은 모두 문학 창조의 요령을 파악한 사람들이었고, 문장 작법의 해방 논자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은 동성의법의 공허를 알았기 때문에 더욱이 性靈을 기르는 것의 고귀함을 알

았다.

이렇게 하여 린 위탕은 영국 산문과 명말 산문의 공통점으로 ‘幽默’를 발견하는 한편, 표현주의 이론가와 중국의 낭만주의 비평가들의 공통점에 ‘性靈’을 발견하므로서 20년대에는 아직 서로 관련을 가지지 않는 채 혼재하고 있던 제관점에 이러한 맥락을 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論文·下>(1933)를 보면 ‘性靈이 두자야말로 근대 산문의 명맥이고 오늘날의 문인이 쓰는 형식만으로 내용이 없는 문장의 폐해를 바로잡기에 충분하다고 하고 ‘幽默’를 제창한다면 반드시 먼저 ‘性靈’의 해방을 제창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林의 관심은 幽默 라는 요소를 계기로 한 중국문학사 전체의 재인식으로 향한다. 후년의 林이 서구전용으로 자주 언급하게 되는 儒道二家의 차이에 대한 견해도 그 초기에 있어서는 幽默라는 관계로부터 제시되어 있던 점을 지적해 두어야 마땅할 것이다.

林이 처음으로 幽默문학과 도가사상의 관계를 지적 한 것은 <論幽默>(1934)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중국사상의 2대세력인 儒道二家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전자를 근신과, 도학과, 후자를 초탈과, 유머과로 분류한 다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정문학은 거짓의 문학과 경세의 학이므로 좁게 보면 진정한 문학이 아니다. 참된 것은 ‘性靈’이 가득찬 문학인데 사람의 가장 심오한 곳을 읊은 음영시는 모두가 자연에 귀의한 유머과, 초탈과, 도가과에 속하는 것이다. 중국에 도가 문학이 없고 幽默가 없는 유가도통만이 존재했다면 시와 글은 얼마나 쇠약해져 말라붙어 버렸을 것이고 중국인의 영혼은 얼마나 고갈되었을 것이었겠는가!

林은 정통문학이 ‘幽默’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은 결국 ‘幽默’의 본질 및 그 작용을 이해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며, ‘幽默’는

조정이나 사대부가 배척해 보았자 결국 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진정한 幽默은 학사, 대부들이 이미 쓸 수 없게 된 것이지만, 다만 性靈과 문인의 저작속에는 희귀하게도 幽默을 띤 논설문을 가끔 발견할 수가 있다 …… 정통 문학 이외에 학사, 대부들이 齊東野語 라든지 패관소설이라고 지명하여 비판한 문학에는 오히려 자주 幽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한다. 즉 ‘性靈’의 발로로서의 ‘幽默’을 문학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비정통 문학이야말로 높게 평가되는 데 이러한 관점으로부터는 晉의 清談, 宋의 平話, 元의 戲曲, 明의 傳奇, 淸의 小說이 특히 幽默文學이고 《수호전》 《서유기》 《유림외사》 《경화연》 《노잔유기》 등이 높이 평가된다. 린 위탕의 문학사상은 여기에서 크게 양상을 바꾸어 다음 해의 《吾國與吾民》에 있어서 더욱 체계적, 논리적인 서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본고에서는 ‘幽默’ ‘性靈’이라는 개념이 린 위탕의 문학관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증명하는 예로서 확인하는 데에 멈춘다.

## 2. 幽默, 性靈과 小品文 필조의 관계에 대해서

린 위탕의 공안, 경능파의 ‘性靈’설에 대한 공명, 즉 전통 문학에 포함되어 있는 현대적 시각의 발견은 周作人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林은 그러한 요소들이 서양의 Familiar essay에 매우 가까운 것으로, ‘性靈’표현의 매체로서의 에세이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30년대 이후 林은 ‘性靈’을 표현하며 ‘幽默’를 함유한 스타일로서 ‘小品文’을 제창한다. 예컨대 <《笨拙》(Punch)記者受封>(1933)에서 영국인은 ‘幽默’을 존중하지만 ‘중국의 문인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지킨다고 하며, 중국에 幽默家가 출현하지 않는 원인을 정통 사상, 즉 유가 전통의 속박에 있다고 보면서 小品文이 번성하게 되면 幽默家가 출현한다고 주장한다(<與陶亢德書> 1933). 林이 小品文을 말할 때에는 아마도 幽默派인 도

가의 존재가 엄두에 있었던 것은 확실한 듯하다. 그러나 전술의 <論幽默>에 보이는 다음의 단락에는 林의 小品文 제창이 단순한 비정통 사상, 문학의 복권으로 끝나지 않는 구체적인 문체 이미지를 수반하는 것이었음이 간취 되는 것은 아닐까!

道學家는 幽默를 그들의 비명, 묘지 奏表 등의 글월에서 없앨 수는 있어도 幽默를 그들의 인생의 밖으로 버려버릴 수는 없었다. ……유생의 생활에서 만들어지는 문장이 아무리 도학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친우와의 한담을 즐길 때 등, 언제나 해학이나 담소가 곁여되었던 것만은 아니다.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하면 문장에 스며든 幽默인 것뿐이다.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지키는 유생이라고 하더라도 ‘친우와의 한담을 즐길 때’ 만큼은 자연스럽게 幽默를 스며내고 있으므로 이것을 글에 담아내므로써 幽默를 글 속으로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부터 林은 朱熹의 《名臣言行錄》이야말로 인정에 통하는 최상의 ‘幽默’라고 평가한다. 문인이라고 하는 사람, 감히 서적에는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말할 때에는 지극히 ‘幽默’가 풍부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林은 小品文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로서 ‘閑適’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한담체, 미어체(미어는 정담정도의 의미. 원문은 ‘媿語’)라고 한 ‘실마리조(대화조)를 중시했던 것이다.

더욱이 그의 小品文 이미지의 언급으로서 <《人間世》發刊詞>(1934) 및 <關於《人間世》>(동년)의 두 편의 문장을 확인해 보자. 전자에서는 小品文은 중국 근대문학의 유일한 성공이라고 하여

창작소설은 비록 가작이라 하더라도 小品散文의 훈련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그것은 小品文이 논리를 전개시킬 수가 있고 내심의 정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小品文은 자아를 중심으로 하고 한적을 격조로 하는 것으로

서양 문학으로 말하자면 ‘個人筆調’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후자에서는 《人間世》의 취지를 언급하면서

小品文 필조 즉 ‘媚語式筆調’ 또는 ‘個人筆調’ ‘閑適筆調’라고도 하는데, 즉 서양의 Familiar Style이고, 이러한 것을 제창하는 데에 있다. 범위는 고문의 소위 小品과 같은 것은 아니다. 요점은 ‘媚語式筆調’의 용도를 확충시키는 것에 있다. …… 그 목표는 ‘開卷有益, 掩卷有味(책을 열면 유익함이 있고, 책을 덮으면 맛이 깊다)’의 八字를 독자에게 권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論小品文筆調>(1934)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갖춘 <小品文>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언급을 한다. 즉, 독자를 ‘친밀한’(familiar) 옛 친구로 인정해,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의 방에서 수다를 떨듯이 쓰는, 실로 정을 토로해 형식에 사로잡힘 없이 자유분방하게 말하는데, 서양의 소위 ‘마음을 연 분위기’(unbuttoned moods)에 도달한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부연해 <小品文之遺緒>(1935)에서는 小品文의 특징을 필조와 표현 방법에 있다고 주장한다. 言志派가 표현하고 있는 것도 道라고 하는 문인도 있지만 言志, 載道의 구별에 문제가 되는 것은 志이나 道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실은 필조이며, 표현 대상이 아니고 표현 방법에 있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小品文의 필조는 읽었을 때 지우와 대담하는 것 같이 서로 녹아지며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다’ 고 말해, 스스로의 小品文에 대한 기호가 당면하여 형식=‘실마리조 대화체’를 중시한 것이라고 표명하는 것이다

五四시기에 있어서의 서양의 문체이입의 주장 이래 린 위탕에게 일관되게 존재해 온 문체로의 흥미는 ‘性靈’의 발로인 ‘幽默’를 ‘閑適’의 분위기를 가지는 ‘실마리조 대화체’에 의해 쓰인 小品文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문체론으로서의 일단의 형태를 결론적으로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와야 할 것은 ‘閑談’ ‘媚語’라고 하는 ‘실마리조’를 어떻게 표기하며 문학언어로서 세련시킬까라고 하는 문제였을 것이다. 거기에서 30년대 중기

이후 린 위탕의 뇌리에 부상한 것이 語錄體라고 하는 새로운 문체였다.

#### IV. 文白混合文 語錄體에 대해서

린 위탕은 신문학의 창출은 사상해방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해방된 사상의 매체로서의 새로운 문체획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30년대 중기이후의 林은 위에서 정리해 온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형태로 독특한 문체론을 전개한다.

문학혁명으로부터 20년을 경과한 30년대 중기가 되자 서사언어에 있어서의 언문일치의 추세는 현실성을 동반한 거의 부동의 문학상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요컨대 문학혁명 초기에 표준으로 삼았던 명칭 白話도 아니고, 현실에서 대중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구두어도 아닌 ‘새로운 八古文’이라고조차 불린 서양화 문체의 유행은 34년에 ‘대중어’를 둘러싼 쟁론을 시작으로 비판, 극복의 대상으로 평가받게 된다. 린 위탕도 <說個人筆調>(1934)에서 ‘文法の 西洋化와 ‘個人筆調가 五四新문학 초기의 백화문 제창 이래 문체상의 2대 변화라고 지적하며, 個人筆調의 문학 해방에 연결되는 의의를 인정하는 한편 文法の 西洋化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한 그가 당시 통행하고 있던 서양화 문체의 폐단을 극복한 새로운 서사언어로서 상정했던 것이 ‘語錄體’이었던 것이다.

##### 1. 語錄體의 유래에 대하여

린 위탕의 ‘語錄體’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간결하고 요령있는’ 것은 중국문체의 특징이자 중국인에 있어 최대의 속박이기도 하다고 하며 文言文의 폐해를 지적한 <論文·上>(1933)의 시기가 아닐까 추측된다. 이 글에서 林은 명말의 성령파 문인 張岱의

<岱志><海志>를 청말의 당시 白話로 쓰인 《老殘遊記》와 비교해 ‘放足’(도중에 멈춘 전죽과 같이 철저하지 않은 것)과 ‘天足’(전죽을 하지 않은 자연그대로의 발)정도의 차이를 느낀다고 하면서 그 자신 높이 평가하는 성령파의 小品文마저도 文言의 울터너티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 金聖歎이 《水滸傳》에 쓰인 서문이야말로 최상의 문장이라고 평가하고는 있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기존의 문체의 차용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문체를 모색하는 자세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論文·上>과 같은 날에 쓰인 (잡지《論語》)<編輯後記>이다. 여기에서 그는

論語라는 것은 孔子門人이 만든 대서의 것이지만 우리는 물론 그 이름을 빌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孔家店의 간판을 훔칠 생각은 없다. 우리 동인들은 이따금씩 모여 국가의 대사나 남녀의 사사로운 일 …… 등을 논해 왔다. 이것이 ‘論’의 유래이고 ‘語’는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 이것이 ‘語’의 유래이다. 이러한 두 글자가 합쳐져 論語가 된 것이고 스타일, 내용도 공자의 《論語》와 닮았다.

라고 하여 스스로 제창하는 小品文의 문체가 스타일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論語》와 유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역시 ‘이야기한다’라는 스타일이다. 서사언어에 ‘이야기하는’ 실마리조를 도입한 語錄體라고 하는 착상의 근원에는 상기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도 《論語》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 2. 新式白話=서양화된 문체에 대한 불만

그렇다하더라도 린 위탕의 語錄體제창을 주시해 볼 때, 직접적으로는 그로 하여금 ‘이에 물려 가려움이 그치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하게 한, 당시 통행하고 있던 서양화의 영향이 강한 白話문체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선<sup>13)</sup> <可憎的白話六四>(1933)에

서 확인할 수 있다. 林은 南京劇場에서 본 白話戲曲 《母性之光》을 구체적인 예로, 그의 ‘불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즉 먼저 이 제목은 의미가 통하지 않으며 대사 속에도 알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한다. 예컨대 ‘你若接受你父親的意見’은 인간의 말이 아니다(원문 ‘鬼話’), 인간의 말이라면 ‘你若早聽你爸爸的話’라고 해야 마땅하다, 라는 식으로 그는 하나하나 지적해 나간다. 이 희곡의 개요를 소개한 해설서 <《母性之光》本事>의 일부분을 보도록 하자:

“這天、小梅參加一個盛大的音樂會。慧英在這大會中遇見了前夫家瑚。當家瑚的一個面部輪郭觸到慧英的眼帘時、她早呆了。”……末句云：“她的悲歌、他的血淚、觀衆們的同情傷感心弦緊張—就在這悲歌、血淚、觀衆們的同情傷感心弦緊張時、綉幕緩緩的垂落了。”(방점은 린위탕, 한자 표기는 편이상 상용한자를 이용했다. 이하 원문 인용 같음)

이 단락에 대해서는 장황하고도 의미가 불명확해 이러한 白話의 출현에는 경계해야 마땅하다고 林은 지적한다. 그는 서양화한 白話는 文言之조차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술한 문장과 같은 호에 게재된 <論語錄體之用>(1933)에서도 볼 수 있다. 지금의 문인이 쓰는 白話文은 고인의 四六駢體文과 같은데, 예컨대 ‘憂愁를 ‘心弦的顫動, ‘欣喜를

- 13) 60년대에 쓰인 글 <周氏兄弟에 대하여>에서는 白話의 장황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林은 당시를 회상하며 魯迅 문이 문체의 유럽화를 제창해 그 결과 서양의 나쁜 물이 든 불량소년을 흉내 내는 나쁜 선례를 얻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예컨대 ‘的’ ‘地’ ‘得’ ‘牠’ ‘牠’ 등의 사용법이고 ‘국어’가 야만스러워 서양 문법을 모방해야 한다고들 한다’ 라고 하며 이하의 예를 들고 있다.  
 <단수, 복수의 구별> 자손이 다수일 경우, 복수를 나타내는 ‘們’을 더할 수 있고, 사물이나 동물의 경우는 ‘牠’를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능동, 수동태의 구별> 유리컵은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깨뜨려지는, 五柳선생님의 문이 달아 있다고도 하지만, 마땅히 달한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징은 두드러지고 북은 쳐지고 서적은 팔리고 물건은 팔린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之’ ‘乎’ ‘也’ ‘者’ ‘了’는 ‘了’ ‘么’ ‘啊’ ‘唷’ 로 고칠 수 있는데 백화문은 이로부터 문명화되었다고 린은 말한다.

‘快樂的幸福’, ‘受勸’을 ‘接受意見’, ‘快点’을 ‘加上速度’라고 표현하는 등이 전형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나는 白話의 文을 싫어하고, 文言의 白을 좋아한다. 고로 어록체를 제창한다. 어록체에 의해 솔직하게 표현하면 한 마디는 한 마디 2구는 2구로 비틀어진 白話보다도 아주 낫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명백하다 하겠다. 또한 <與徐君論白話文言書>(1935)에서는 衛術의 <舊書年>(《申報·自由談》1935년 4월 10일)을 예로 허용하기 어려운 白話文으로 분석하고 있다.

書商一面秉承雜誌年的意緒、盲目底的競爭着市場、專門凭藉雜誌的銷售的中間商也就出現了。一面是停止出新書、僅以日書的販賣與翻印、用以粉飾門面。整批被置於眞實的、歷史底的評價而放置的典籍圖書、目下於是正在猖獗着。這正因爲<書>是企業的一部門、受周期性的恐慌的自然律所支配的緣故。

린 위탕은 이 100자 정도의 한 단락에서 문제가 되는 17 곳을 들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확인해 본다면,

‘盲目底的“歷史底的’은 단순한 서양문법의 모방, ‘專門凭藉’는 간편한 白話어휘인 ‘專凭’으로, ‘專門凭藉雜誌的銷售的中間商’은 ‘凭藉這銷售’으로 대신해야 하고, ‘以……用以’‘整批被置……而放置’는 기괴한 표현, ‘整批被置於眞實的, 歷史底的評價’는 ‘鬼話’(인용자주: 귀신의 말, 존재하지 않는 말), ‘眞實的’은 터무니없는 표현, ‘目下於是正在猖獗着’는 국어가 아니고, ‘着’의 용법은 부자연스러우며, ‘企業’은 ‘商業’과 구별해야 하며, ‘一部門’은 ‘鬼話’이므로 ‘一部’로 고쳐야 하고, ‘中間商’‘周期性的恐慌’‘自然律’ 등은 새로운 명사로서 인정은하지만 남용해서는 안 된다…… 등등.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문장은 문장으로서의 맛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의미조차 불명확하다. 게다가 작자가 그것을 자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 최대의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일용문체에 있어서의 文言의 대두, 文言 어휘

의 혼재를 재촉하는 것이 되고 만다고 林은 생각한다. 그러나 전술한 <論文·上>에서 표명하고 있던 것처럼 그는 文言을 ‘중국인에 있어 최대의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므로 단순한 복고를 허용한다는 입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체제의 신구를 불문하고 ‘청신함과 ‘辭達’(의미의 전달)을 중심으로 하고 文言어휘와 白話어휘의 공존도 인정하게 된다. 즉, ‘彼輩와 ‘他們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체<與徐君論白話文言書>에서 보이는 말)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文言文과 白話文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는 ‘새로운 문체’로서 린 위탕이 제창한 ‘語錄體’란 구체적으로는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주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3. 語錄體의 제창

린 위탕은 새로운 문체 제창에 즈음하여 어디까지나 文言과 白話의 교류를 목표로 하면서 文言 혹은 白話라는 식의 이중택일적인 발상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語錄體제창을 표방한 <論語錄體之用>(1933) 및 <語錄體舉例>(1934)를 확인하자. 먼저 전자에서는

나는 문학상의 반혁명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白話文을 쓰는 것은 세상의 추세이지만 지금의 사람의 솜씨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白話文에서는 文言에 비해 쓰는 데에 시간이 들고 천박, 부적절하기도 한데, 語錄文을 많이 쓰면 이러한 폐해를 바로잡을 수가 있다. 원래 白話를 사용하면 부적절한 것도 있다. 서간, 메모, 전보, 법률 문서, 공문서, 행정 통지가 이것이다 …… 나는 이전부터 국어교과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중국 문학에서는 文言으로부터 白話로의 과도가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을 괴로워해 왔다. 지금 그것을 알았다. 語錄體는 즉 文言과 白話를 연결하는 다리역할을 한다

라고, 語錄體가 文白의 ‘다리 놓음’역할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후자에서는 문장에는 ‘생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性靈’의 해방이 필요하다, 말을 장식하지 않는다, 수사에 주의하고, 고래(古來)의 상투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典故를 사용하지 않는다,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서 예컨대 <論語錄體之用>에서 《論語》의 문학적 가치는 허식이 없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원래 말이라는 것은 …… 마음의 소리이다. 마음속에서 돌연 떠오르는 것을 붓이 그대로 써 내려가면 쓰인 곳은 모두 진심을 잃지 않는다.’ 라는 주장등은 ‘性靈’의 발로를 중시하는 종래의 문학관의 계승으로서 이해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도 오히려 주목해야 할 것은 林이 이미지하는 語錄體가 구체적인 분석을 수반하여 제시되고 있는 점이다. 예컨대, 金聖歎의 《水滸傳》서문에 보이는 ‘人生三十未娶、不応更娶、四十未仕、不応更仕’가 語錄體이며, 지금의 白話를 사용하는 문인이 쉽게 표현할 수 없는 빼어난 글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그가 말하는 ‘語錄體’란 文言의 간결함과 장황하지 않은 白話의 소박과 생기를 겸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먼저 文言의 간결함에 대해서 林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컨대 <蓋><使><抑><曰><皆><無><何時><何地> 등의 어휘는 모두 文言이지만, 白話의 <因爲><倘使><還是><說><統統><沒有><什麼時候> <什麼地方>보다 낫다……<蓋>을 사용하는 편이 <因爲>보다 간편하고, <抑……乎>를 이용하는 편이 <還是……呢>보다 간결하고 세련된 것에는 동의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文言은 소설에는 적합하지 않고 설리, 변론, 서간 메모 등에도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예컨대 서간에 이용하는 어휘로서 ‘示悉’ ‘至感, 歉甚’을 ‘你的芳函接到了’ ‘很感謝你, 非常慙愧’로 완전히 白話化 해 버리면 글이 장황해지므로 양자를 절충한 문체=語錄體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그 자신이 제창하는 語錄體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 林은 寒山詩와 袁中郎의 서간등을 그 모델로서 제시한다. 각각 다음과 같은 것이다.

我見世間人、個個爭意氣、一朝忽然死、只得一片地、闊四尺、長丈二。汝若會出來爭意氣、我與汝立碑記。(寒山<我見世間人>四)

髡公近日作詩否? 若不作詩、何以過活這寂寞日也。人情必有所寄、然後能樂。故有以奕爲寄、有以色爲寄、有以技爲寄、有以文爲寄。古之達人、高人一層、只要他情有所寄、不肯浮泛虛度光景。……子髡之才、天下事何不可爲、只怕慎重太過、不肯拚着便做。勉之哉、毋負知己之意也。(袁中郎 <与李子髡>、傍点是 林語堂)

상술한 예문에서 袁中郎의 서간에서 보이는 ‘人情必有所寄, 然後能樂’ ‘有以色爲寄, 有以技爲寄’은 文言으로서 가장 세련된 표현이고 白話에서는 그 뜻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한다. 또 ‘天下事何不可爲’ ‘勉之哉’는 文言으로부터 白話로의 과도기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므로 이것도 보존한다. 이러한 혼재의 허용이야말로 語錄體의 장점 내지는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文白 및 그 과도기적인 표현을 혼재시키며 절묘하게 활용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으로서 <與徐君論白話文言書>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의 문장은 이미 文白의 조화의 수준을 실현하고 있다. 당신도 10행을 읽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白話인지 文言인지 구별이 불가능할 것이다. 장래의 문체는 아무래도 이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즉 文言의 간결을 취하고 그 진부함을 버린다. 白話의 평이함을 취하고 그 장황함을 버린다는 이치이다. 文言을 쓰는 사람은 난해한 조사를 경계하고 白話를 쓰는 사람은 字句의 사용에 신중해야 마땅하다.

이 단락의 원문을 인용하면 이하와 같다.

現在許多人文章已經做到文白調和境地了。你可讀了十行而不弃其爲白話爲文言。將來文体總是趨這一途、得文言之簡潔而去其陳腐、得白話之平易而去其冗長。寫文言的人、切戒用晦澁艱辭、寫白話的人、也應切戒用字句。

즉 이 단락자체가 린 위탕 자신에 의한 語錄體의 실천인 것이다. 그는 ‘趨這一途’를 ‘走這一條路’, ‘得白話之平易而去其冗長’을 ‘得了白話的叫易懂而去掉了白話的魯里魯蘇’라고 白話로 고칠 필요는 없으며 차라리 혼재를 적극적으로 용인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체를 더욱 세련시키면 간결함을 동반하는 일용문체, 즉 보다 이상적인 白話文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주장에 관해서는 <怎樣洗煉白話入文>(1934)에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글을 집필할 당시 주로 좌익 문단으로부터 五四新文學 이후의 白話文이 마침내 서구화된 결과로써 새로운 ‘팔고문’이 생겨나 대중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두어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정부 주도의 ‘국어’도 같다는 소위 ‘대중어’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린 위탕도 이러한 논의에 무관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그러나 그의 입장은 여러 가지의 문제가 혼재하는 현상을 차라리 용인하면서, 이것을 보다 좋은 일용문체의 확립에 참고한다는 말하자면 점진적인 개량을 견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의 林의 주장은 대체로 (1) 성어의 효과적 이용 (2) 전통 白話의 계승 (3) 文言과 白話의 장점을 살린 어휘의 병용 등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林이 제시한 구체적인 예와 함께 확인해 두자.

(1) 성어의 효과적 이용

<喜歡得了不得> <比不過他> <說話的投機, 大家心中理會>라고 하는 白話표현에 식상이 나면 <欣喜雀躍> <相形見絀> <相視莫逆、心照不宣>이라고 써도 좋다. 이러한 성어는 중국 문자의 전통 안에서 단련되어진 표현이고 白話표현과 서로 맞물려 문장을 풍부하게 하는 뛰어난 유산이다.

## (2) 전통 白話의 계승

<待放下又放不下> <你可仔細>의 <待><可>, <可不要把身体弄糟了> <可不是嗎?>의 <可>의 용법은 전통적인 白話의 진수를 전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문장에서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只管出神> <叫人心酸> <總不理會> 등도 좋은 표현이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只管>은 사용하지 못하고 더욱이 <心酸>을 <悲哀>로, <理會>를 <注意>로 대신해 버린다. <派他一個不是> <落個不是>의 <派> <落>의 두 글자는 진정한 구두어를 반영한 것이지만 이것도 이용해야 한다. 예컨대 <別提那個了>의 <提>를 오늘의 白話文에서는 <提起>라고 하므로 완전히 정교함과 다채로움을 잃어버린다. <打抱不平>을 <路見不平>으로 <合眼>을 <閉着眼睛> 등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것인데, 이러한 표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오늘날의 白話에 맛이 없는 것도 당연하다. 전통적인 白話의 옛센스를 계승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紅樓夢》의 표현등이 평가되는 것이 당연하다.

## (3) 文言과 白話의 장점을 살린 어휘의 병용

오늘의 白話어휘는 확실히 文言어휘보다 구체성이 잘 살려진 표현이지만, 정감의 전달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명말 공안과 문인의 서간에 이용되고 있던 <思量> <受用> <日子> <快活> 등의 표현은 <思索> <享受> <時間> <愉快> 라고 하는 표현에 비해 정감을 보다 잘 전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白話의 성격인 구체성을 가미하는 것으로 '건강한' 문체가 태어날 것이다

린 위탕의 제창한 語錄體란 상술과 같은 요소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러한 정리에 의한다면 그가 文言, 전통 白話, 서양화 문체의 융합이라고 하는 서사 언어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단층간의 가교에만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이해될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글에 있어서도 스스로가 이상으로 여기는 白話文은 '가장 뛰어난 북경어(京話)의 색채를 많이 띤 "普通話"이다'라고 하여 새로운 문체 건설에 걸친 관

심의 초점이 동시대의 구두어, 속어, 방언으로부터의 영양 섭취에까지 닿고 있던 것을 엿보게 한다. 이 관심은 《吾國與吾民》에 있어 더욱 발전되고 있고 그의 문체론에 심화를 더해 주고 있지만, 그 검토는 다음의 기회에 양보하는 것으로 하겠다.

## V. 나오는 말: 語錄體체창의 문학사에 있어서의 시사

劉師培의 문을 논한 <論文雜記><sup>14)</sup>에 ‘語錄’을 언급한 흥미로운 곳이 있다. 劉는 文과 道의 관계를 말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소박한 문장을 숭배하는 것은, 文과 道가 나누어져 버리게 된다고 하여 ‘唐代의 승려는 문장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승의 말을 저속한 말로 적었는데, 이것을 어록이라고 한다. 宋代 학자의 제자는 돌아가신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술하여 사용했다. 明代에는 스스로 저작하는 사람이 어록을 피했다’라고 한다. 또 수식적이고 꾸밈 있는 글을 존중하여 저속한 말을 삭제하는 것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의 문체 수정의 하나의 단서인 것이다. 문학 언어에 대해서 말한다면 문이란 옛 문장을 규범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장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劉는 문체는 글을 규범으로 해야 마땅하다며 문의 저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劉의 논점에 관해서 木山는 ‘문학사의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진화의 방향에 일면으론 거역하는 모순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지적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宋대 유자의 ‘語錄’에 계속되는 元이후의 속어적인 회곡·소설의 발전을 ‘언어와 문자의 일치로의 과정’이라고 파악해 그것을 다만 경멸할 뿐인 ‘이리석은 학자’를 ‘진화의 보편적 규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웃기까지 하면서도 그러나 ‘고대의 문장’은 갑자기 중지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14) 劉師培, <論文雜記>, 《劉師培辛亥前文選》(中國近代學術名著叢書, 錢鍾書主編) 劉師培, 李妙根, 朱維鏞, 香港: 三聯書店, 1998.7, 33쪽.

논하는 곳에 劉는 후의 胡適의 《白話文學史》에 통하는 것 같은 논의를 전개하면서도 가치의 판단만이 胡와는 정반대를 향한 모습이다.<sup>15)</sup>

이 단락은 중국 문학전통의 무게를 통감시키는 劉師培 文論의 평가에 정곡을 찌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꾸밈 있는 고문=사어, 구어=일상용어로 하는 문학혁명이 胡適에 의해 제창된 이래 文言/白話에 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90년대 중기 이후의 대륙 문화계에서는 五四라디카리즘 비판의 일환으로서 五四新문화운동에 있어서의 白話문제장이 이데올로기 주도에 의한 문학언어전통의 단절을 불렀다고 하여 文言文이나 서양화 문체에 의한 신문학 이외의 대중문학 시장에서 영향력을 유지해 온 舊式白話(진술한 전통白話와도 다르다)등이 재평가되었다. 확실히 語錄은 상기와 같이 劉師培, 胡適(의<文學改良趨議>) 등을 포함해 당시의 문단에는 상당히 의식되고 있었다. 린 위탕도 크게 문어에서 구어로 라는 언어의 진화론적 관점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러나 語錄體를 文言과 白話의 교량역할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이 점이야말로 그의 語錄體제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린 위탕의 논점을 쫓아보면 상기와 같은 五四시기 白話文제창 비판이 자칫하면 혁신=白話=음성/전통=文言=서사라는 문학언어상황, 문화상황을 이항대립으로 단순화시켜 도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비해 당시의 문학자의 문제의식이 실제로는 근대 서사언어확립이라고 하는 문제의, 보다 깊은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던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린 위탕의 문체론의 현대적 시사라고 하는 흥미 깊은 문제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본고에 있어 충분한 준비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林의 문체론 자체의 역사적인 맥락의 정리라고 하는 점으로 한정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컨대 그가 중국의 전통문학안에 ‘幽默’의 원천으로서의 ‘性靈’을 찾아내는데 있어서

15) 木山英雄, <文學復興と文學革命>, 《中國-社會 & 文化》12(1997.6), 217-218쪽 참조.

큰 영향을 주었을 周作人の 의론을 비롯한, 동시대에 병행해 존재한 각종의 의론과의 관계, 더욱 크게는 문학언어의 문제를 축으로 자리 잡은 문학사의 흐름 전체에 있어서의 林의 의론의 자리 매김 등은 본고에서 언급할 수 없었던 중요한 문제로서 필자에게는 의식되고 있다. 林자신의 의논에 대해서는 보다 망라적인 언설의 검토가 필요한 것은 물론, 小品文, 語錄體라는 문체의 문제에 관해서도 본고에서 검토한 제의논과 동시대에 집필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林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吾國與吾民》의 전면적 분석이 불가결하다. 이러한 보다 전면적인 검토는 다음을 기하고 싶다. 오늘날의 문화 context에 있어서의 린 위탕의 문체론 재평가에 이르러서는 제문제의 필요한 보충의 다음에 와야 할 과제일 것이다.

### < 參考文獻 >

- 佐藤亮一 역, 《ソビエト革命と人間性》(The secret name 린위탕저, 東京: 創元社, 昭和34년12월) 1959.12.
- 木山英雄 (1997), <文學復興と文學革命> 《中國—社會と文化》12 (東京: 中國社會文化學會) 1997.6.
- 中田喜勝, <台湾の新聞用語の歐化文体について—林語堂の發言とその反論> 《九州中國學會報》17, 1971.5
- 黎錦熙, 《國語運動史綱》(民國叢書, 中國語文的新生/倪海曙編. 《民國叢書》編輯委員會編; 第2編 52 / 語言·文字類, 上海書店) 1990.
- 劉師培著, 《劉師培辛亥前文選》(中國近代學術名著叢書; 李妙根編, 朱維鈺校, 香港: 三聯書店) 1998.7.
- 趙家璧主編, 《中國新文學大系 散文二集》(上海文藝出版社) 1980.
- 《中國現代文學期刊目錄彙編》(天津人民出版社) 1988.9.
- 《中國近代期刊篇目彙錄》(上海人民出版社) 1984.3.

그 밖에 台灣 《中央日報》《晨報副刊》，《小說月報》，《文學週報》，《東方雜誌》 등.

### <中文提要>

90年代后，中國大陸文化界上，對五四運動時期提倡的白話文有這樣的解釋：文化革新=白話=說，傳統=文言=寫。這樣的文學語言狀況，在形式上使傳統和革新的對立更加尖銳。那時在分析文稿的時候，都必須參照林語堂的文體理論，這個例子就說明，近代書寫語言確立的問題，就是當時的作家用刨根問底的精神，在更大範圍內考慮的問題。

林語堂在1932年創刊“論語”雜誌，他的文章與時代相背馳，提倡“閑適小品”。這樣的印象在人們比較強烈，他是一位被稱為“幽默大師”的近代知識分子。但實際上他應該是一位研究近代中國哲學困局的，東西方文化理論”的積極發言人。並且曾經為適應自己的文學觀感，展開“東西方文化比較理論”的獨特的議論者。這個事實容易被忽略，但這個問題，通過他的文體理論鮮明的被體現出來了。

주제어：幽默, 小品文, 閑適筆調, 文言, 白話, 語錄體